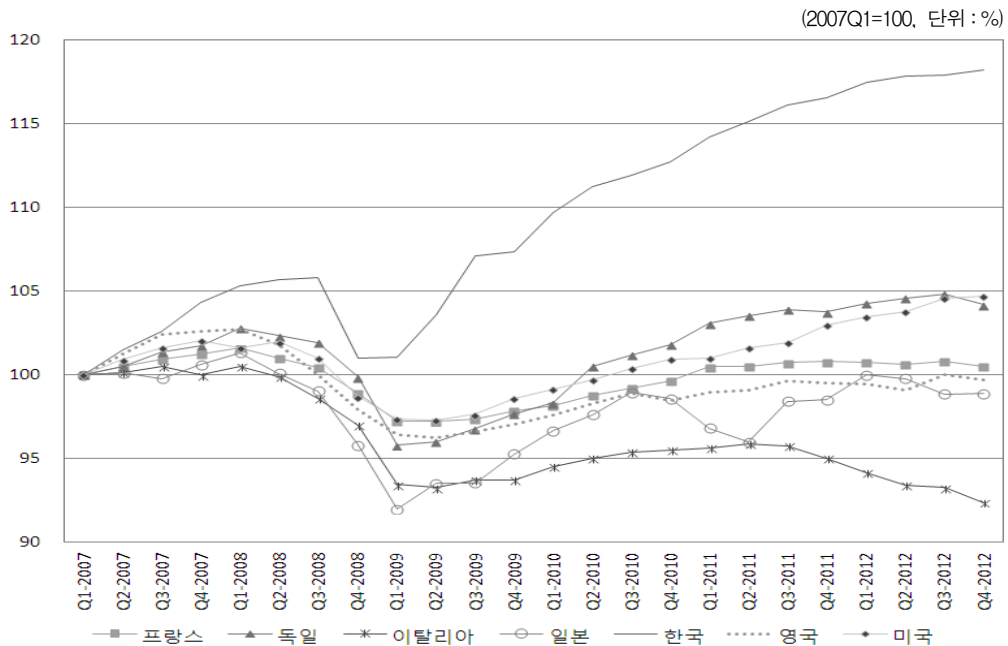


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 고용 변화

-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이전인 2007년 1/4분기부터 2012년 4/4분기 현재까지 프랑스, 독일, 이탈리아, 일본, 한국, 영국, 미국 등 주요 국가의 경제·고용 상황 변화를 살펴봄¹⁾.
-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경제에 악영향을 받기 시작하는 시점은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지만, 대체적으로 2008년 상반기에 경기의 고점(peak)을 통과하였음.
 - 한국은 금융위기 발생 1년 후인 2009년 1/4분기부터 회복기에 진입하여, 이후 타 국가들에 비해 비교적 빠른 경제회복을 지속해 왔음.

[그림 1] 국가별 GDP 추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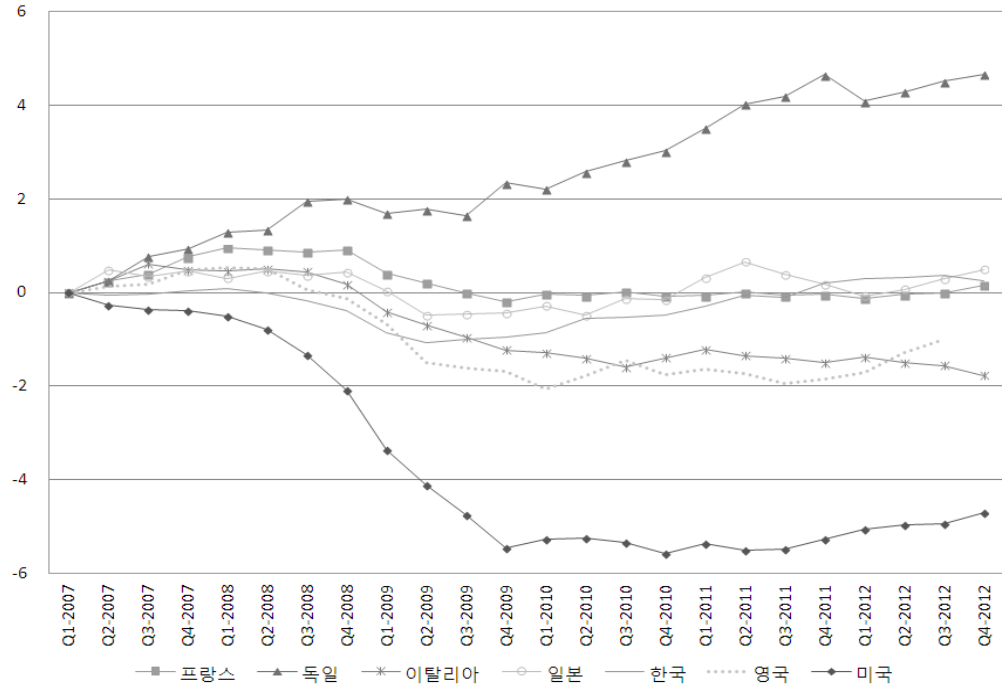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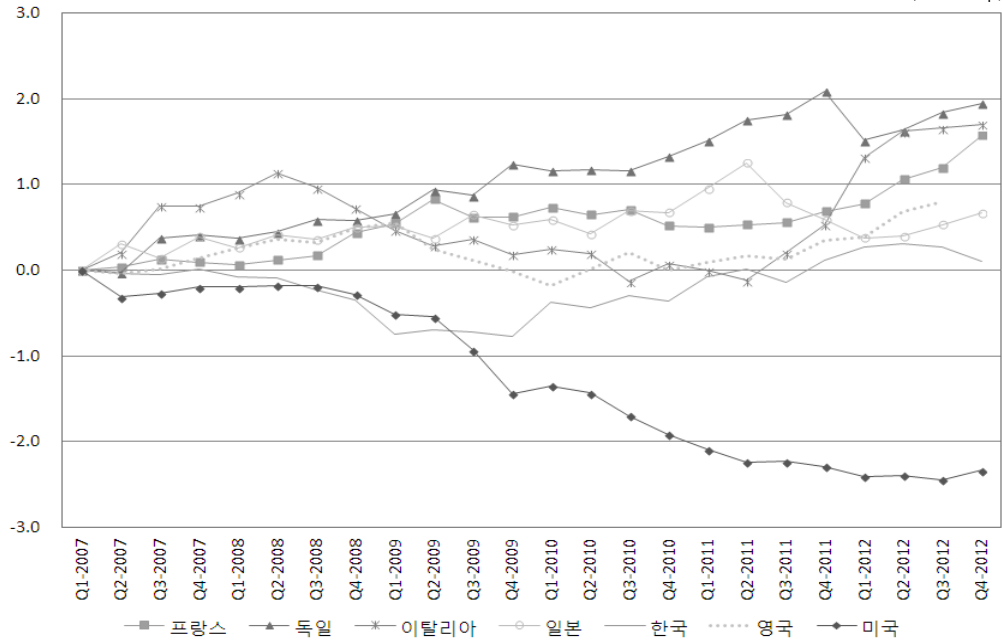


자료 : OECD(고정연도 PPP 달러 환산 계절조정 분기별 GDP 기준).

1) GDP는 고정연도 PPP 달러 환산액 기준이며, 계절조정된 자료임.
GDP는 각국의 2007년1분기=100 으로 놓고 환산하였으므로 단일국가의 시점 간 격차는 % 차이로 해석할 수 있음. 한편 경제활동참가율, 고용률, 실업률 등은 2007년 1분기와와 %p 차이임.

[그림 2] 국가별 경제활동참가율(위) 및 고용률(아래) 추이(15~64세 기준)

(단위: %p)



자료 : OECD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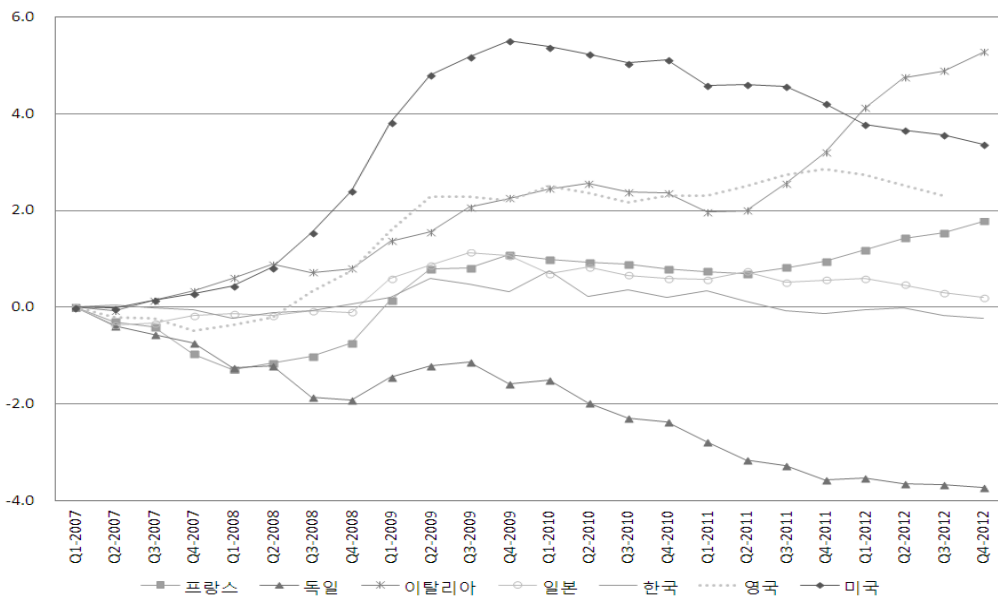
- 비교국가 중 위기 직전인 2008년 1/4분기 수준을 회복한 국가는 한국, 독일, 미국, 프랑스뿐이며, 경제회복 페이스는 한국 > 독일 > 미국 > 프랑스 순으로 나타남.
- 이탈리아, 일본, 영국의 경우 2007년 1/4분기 수준도 회복하지 못하였으며, 특히 이탈리아의 경우 최근 유럽지역 재정위기의 여파로 GDP 하락폭이 더욱 확대되었음.

- 경제적 성과와는 달리, 미국과 독일 간 노동시장 성과는 서로 대조적으로 나타남.
 - 한국은 금융위기 발생으로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이 하락하였으나 2011년 2/4분기에 2007년 1/4분기 수준으로 회복함.
 - 2007년 1/4분기 당시 75%대로 비슷한 수준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보인 독일, 영국, 미국을 비교하면, 미국은 금융위기 발생 이후 참가율과 고용률이 모두 장기적으로 하락한 반면 독일은 그 반대로 참가율과 고용률이 장기적으로 상승하였으며, 영국의 경우 참가율은 상승하였지만 고용률은 -1.0%p 넘게 악화됨.
 - 2007년 1/4분기와 비교하면 2012년 4/4분기 현재 독일의 고용률(68.5% → 73.1%)은 미국의 고용률(72.0% → 67.3%)과 역전됨.

- 실업률을 기준으로 다시 살펴보면, 참가율 상승에도 불구하고 고용률 회복이 부진했던 국가들에서 실업률이 상승하였음.

[그림 3] 국가별 실업률 추이(15~64세 기준)

(단위 : %)



자료 : OECD.

- 고용률 하락이 참가율 하락보다 빠르게 일어났던 미국의 경우 2007년 1/4분기 대비 실업률이 5.4%p 치솟았다가 2009년 4/4분기부터 완만히 내려오는 양상임.
 - 반면 참가율보다 고용률이 빠르게 상승하였던 독일에서는 2009년 3/4분기부터 실업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여, 2007년 1/4분기 대비 -3.7%p 낮은 수준까지 떨어짐.
 - 결과적으로 실업률에서도 독일(9.2% → 5.5%)과 미국(4.6% → 7.9%)이 서로 역전되는 현상이 나타남.
 - 참가율 상승과 고용률 하락이 동반되었던 이탈리아와 영국의 경우 실업률이 지속적으로 높아진 양상임.
- 본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타 국가에 비해 한국은 상대적으로 노동시장에 중대한 변화 없이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회복하였음.
- 한국 다음으로 순조로운 경제회복을 보인 미국과 독일을 비교하면, 경제적 성과와는 대조적으로 노동시장 성과가 서로 역전되었음을 알 수 있음.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 독일과 미국의 고용률 및 실업률이 지속적으로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 온 결과임.
 - 한편 영국, 이탈리아, 프랑스의 경우 약한 경제회복과 고용사정 악화를 동시에 겪은 것으로 나타남. **KLI**

(배기준, 노동정책분석실 책임연구원)